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20년 9월 15일 | 총권 52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다락골길 164-24 | 전화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학교도서관 진흥법 전면개정을 준비하면서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라

전 지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더 이상 미래학자들의 불확실한 경고가 아니다. 그 경고는 이미 현실과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후로 나누어질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듯이 우리 사회와 문화, 학교가 달라지고 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뒤집어지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이런 도전 앞에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어떤 제도와 법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하는지? 그저 무기력하게 다중이용시설로서 학생들이 등교개학을 한 때도 휴관을 이어가야 하는지? 학교도서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방역과 기후위기의 최전선일 수는 없는지? 새로운 감염병들과 기후변화의 위기 시대엔 어떤 서비스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기본전제 없이 사고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아무도 없는 학교도서관에 주목하라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서교사나 사서나 하는 인력 논쟁으로 서로를 불신하고 논쟁하며 많은 세월을 보냈다.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아직도 믿지 못하겠으면 싸우지 말고 가라. 대신에 전국 학교의 절반이 넘는, 사서교사도 사서도 아무도 없는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해라. 이런 학교에선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빨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지나간 과도기적 상황을 어떻게 앞당길 것인지? 그 기간 동안은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지? 국가가 고민하게 하라. 대안을 법으로 제시하는 것에 주력하길 바란다.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엔 국민적 요구가 담겨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와 사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주객이 뒤바뀌어서는 안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 교사들과 독서교육과 도서관이용을 생활화 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열망 속에 학교도서관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 사회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있는 것이고 학교도서관도 있는 것이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와 사서도 있는 것이다. 사서교사와 사서 간에 논쟁할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을 위한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하는 논쟁이어야 생산성 있고 건강한 논쟁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리와 비중이 약해진 학부모, 일반 교사단체들의 목소리를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과정에 담아내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담아낼 때 국민적 지지를 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학교도서관이 될 것이다.

법을 뛰어넘는 실천을 현장에서 진행하고 보여주어라

법은 현실을 앞서가기보다 뒤따라가는 것이다. 법보다 법개정의 필요성을 견인하는 현장의 필요와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에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기 이전에 학교도서관 전문가들의 많은 실천이 있어왔다. 지금도 코로나상황에 많은 학교도서관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거나 뚫고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노력들을 어떻게 법에 담아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 그 이전에 실천과 현장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법을 기다리지 말고 법을 뛰어넘어 움직여라. 그러면 법이 따라와 뒷받침 해줄 것이다.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자. 인류 역사도 한국의 교육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오지 않았다.

이덕주 |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보령 책사랑책모임이 추천하는 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박정해, 전재학, 김연옥, 김지은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코로나 시대에 책임기

- 김대경(서울 인현고등학교 국어교사)

얼마 전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가 팬데믹 시대 교육의 핵심은 ‘빠른 적응력, 창의성, 공감,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기술적인 방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도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와 EBS 온라인 강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은 가능성을 가진 것이라도 일단은 시도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여기에 책임기의 역할도 한몫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 자못 그 역할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내가 시도해 본 수업과 우리학교에서 실시한 독서 관련 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공부는 문제해결 과정이다.

학기초에 1학년 학생들에게 ‘공부는 문제해결의 과정이다. 그런 관점에서 교과서를 읽고, 우리 시대를 읽고,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자’고 했다. 여러 주제의 읽기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다. 강인욱의 칼럼 ‘고대 인류는 어떻게 전염병을 이겨냈을까’와 김종철 칼럼 ‘코로나 환란, 기로에 선 문명’을 비교하며 고대 문명과 현대 문명이 감염병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생각해 보기도 했고, KBS 다큐멘터리 ‘마포 삼열과 그의 아들들’을 보고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는 글쓰기 과제를 내 주기도 했다. ‘정약용과 그의 제자 황상 이야기’가 나온 교과서 제재를 이용후의 ‘해서 고을 거지 이야기’와 엮어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기도 했다.

슬로 리딩

2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길어진 원격수업, 나는 덜컹 겁이 났다. 1학기 때도 원격수업 기술을 배우고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느라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는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2학기 때는 국어 교과서 단원 중 문학 단원을 하기로 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봤다. 문학의 아름다움과 삶의 가치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수업,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오래전 읽었던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한 권의 책으로 천천히 읽는 수업. 그래, 슬로리딩을 한번 해 보자. 얼마 전 딸아이와 재미있게 읽었던 <정민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라는 책이 생각났다. 처음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책의 앞부분 몇 페이지를 구글클래스룸에 PDF 파일로 올리고, 학생들에게 간단히 느낌 한 줄을 써 보라고 했

다. ‘시는 어렵지만 파면 팔수록 재미있는 것 같다’, ‘주인공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 슬펐다’, ‘시는 언제나 생각을 하게 만든다’, ‘아무리 짧은 시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등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책에 소개된 한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 준 학생도 있었다. 마침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서로 성장하는 교실’에 신청하여 받아 놓은 예산이 있었다. 그 돈을 탈탈 털어 1학년 전체 학생 수만큼 책을 샀다. 지금까지 네 번째 이야기까지 읽고 있다. 읽으면서 글쓴이가 작품을 이해하고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을 우리 현대사와 수필(월명사의 ‘제망매가’, 백석의 ‘적경’, 김소월의 ‘산유화’, 이태준의 ‘과초’ 등)에 직접 적용해 보는 간단한 과제를 내주었다. 짤막하지만 작품을 대하는 아이들의 진솔한 마음이 느껴졌다. 오늘은 그 책에 잠깐 언급된 안건의 ‘몽유도원도’에 관한 글(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을 실시간 수업으로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왜 그리 마음이 몽클하고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결국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즘 자주 느끼게 된다. 2학기 수행평가로는 성장소설 읽기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올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성장소설 100여 권을 따로 신청했다. 책이 오면 학생들에게 장기대출을 해 줄 예정이다.

독서 카페

코로나로 인해 예전까지 해 오던 많은 학교 행사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오히려 책임기는 이 시기에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외로이(?) 남아 있을 때, 책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있겠는가?(나만의 생각인가?) 게다가 책을 핑계로 친구들과 SNS를 통해 실컷 생산적인 수다를 나눌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작년까지 해 오던 독서 카페 행사를,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사서 선생님이 구글클래스룸에 ‘온라인 독서카페’ 방을 만들고 신청을 받은 다음, 주제 도서를 선정하게 했다. 이후 동아리별로 정해진 날짜에 독서토론을 한 후 활동일지와 사진을 올리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전보다 참여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것도 코로나의 역설인 듯 싶다.

인문학당

‘인문학당’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정기적으로 저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행사이다. 독서 카페와 마찬가지로 구글클래스룸에 ‘온라인 인문학당’을 개설하여 신청자를 받았다. 1학기에는 구본권 선생님이 ‘미

디어 바로 보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다. 인문학당 기획단 학생들과 지도 교사들은 도서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100여 명의 학생들은 저마다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강의를 듣고 질문도 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게 하니 더 진지하고 솔직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저자도 무척 인상 깊은 강의였다고도 호뭇해하셨다. 2학기에는 최원형 선생님과 김동식 작가가 오시기로 했다. 기획단 학생들과 함께 저자의 책들을 읽으며 행사를 준비 중이다.

교사들과 함께 한 ‘책 수다’

‘책 수다’라는 교사 책모임을 해마다 해 오고 있다. 1학기에는 도서관에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지키며 두 번 모임을 가졌다. 처음엔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를 읽었다. 여행을 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잊을 수 없었던 여행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묘한 설렘과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두번째 모임에선 강화길의 ‘음복’과 김초엽의 ‘스펙트럼’, 시게마츠 기요시의 단편소설을 읽었다. 이날은 책모임 회원 16명이 전원 참석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 소설의 힘이 이런 건가? 모두들 마음이 메마르고 감정에 목말랐던 것일까? 이후 한동안 한국 소설의 매력에 푹 빠져 박서련, 정세랑, 장류진, 김초엽, 장광명 등 한국 소설작가들의 책들을 부지런히 나눠 읽고 서로의 소감을 카톡방에 공유하며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다음엔 테드 창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기로 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벌써부터 설렌다. 책 모임을 하고 나면 전 교직원에게 ‘책 수다’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보낸다. 내가 산 책, 추천하는 책과 영화, 학교 주변의 자연을 담아 건네는 작은 메시지이다.

오늘은 실시간 수업 중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학생들에게 학교 통학로와 주변의 나무와 꽃을 보여 주었다. 학생들이 없는 학교는 너무 쓸쓸하다. 1학기 때는 원격수업의 방법과 진도 나가기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걱정된다. 공감과 소통, 배려와 연대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주변 동료들과 많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다정한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곧 듣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방학연계 독서 프로그램 「독서삼락」 프로젝트

- 오계화(서산 성연초등학교 사서교사)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새로운 학교로 발령받았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자 처음에는 오히려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전담인력이 없던 학교도서관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장서점검과 서가배열을 새로 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심각해져 개학 연기가 반복되었고, 단장을 마친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올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했다. 교장단 회의를 다녀오신 교장선생님께서 ‘(규모가) 작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책 한 권씩을 사주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시작했다’고 전해주시는 이야기만 계속 맴돌았다. 성연초는 47학급(학생 수 1,200여 명) 규모라 작은 학교가 부럽기만 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회가 왔다! 우리 아이들도 책 한 권씩 사주지 뭐! 일단 저지르고 보자!

독서삼락이란?

2020학년도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모델로 학교급별 학년특성에 맞는 독후 토론활동 촉진과 독서인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읽고-토론하고-체험하기라는 3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수업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3~6학년을 대상으로 다음의 과정으로 「독서삼락」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5학년 A학생의 장래희망은 ‘파티시에’이다. 이 학생은 수업시간에 사서교사와 함께 온라인 서점에서 관련된 도서를 검색하여 『두근두근 나의 꿈 파티시에』라는 책을 골랐다. A학생은 방학동안 이 책을 읽고 책에 나오

는 푸딩과 쿠키를 직접 만들어보고 그 과정을 ‘나만의 레시피 노트’에 정리하였다. 개학 후 친구들과 각자의 활동내용을 나누었다.”

온라인 서점 탐색을 통한 독서 자료의 선택 및 활용방법 지도

인문독서주간으로 배정된 시간 중 1차시를 할애해 수업을 진행했다. 특별실 활용 제한으로 컴퓨터실 대신 스마트패드 30개를 직접 교실로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업이 끝난 후에는 소독티슈로 개별 소독하였다. 수업은 <프로젝트 소개>, <관심 주제 알기>, <온라인 서점 탐색하기>, <읽고 싶은 책 고르기>, <고른 책의 정보 적기> 순서로 진행했다. 활동지에 70여 개의 주제단어를 제시하여 선택을 도왔다. 사서교사는 온라인서점의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방법과 제목이나 주제와 같은 단어를 입력해 책을 탐색하는 과정을 안내했다. 두 가지 조건(정가 15,000원 초과, 만화)만 제외하고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고르도록 했다. 선택 후에는 자신이 찾은 책의 정보를 적게 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했다.

도서구입 및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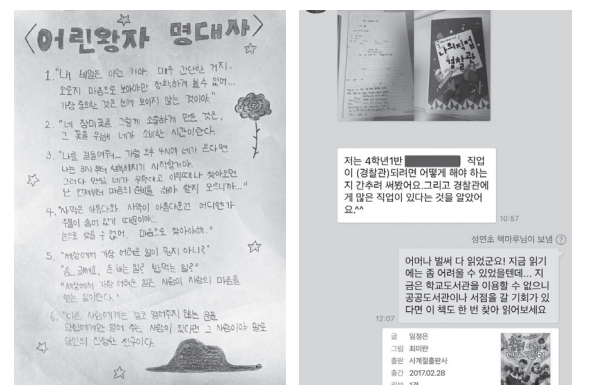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지를 보고 도서구입목록을 작성했다. 일일이 책을 고른 이유와 비교해보고 수준과 주제가 크게 다른 경우 학생을 불러 다시 고르도록 했다. 원격수업 전환으로 다시 고르기 어려울 땐 적합한 책을 임의로 골라 주문하고, 배부할 때 설명했다. 학생들이 고른 책은 총 690권이었는데, 이 중에서 중복도

서를 제외하면 409종이었다. 아이들의 관심사가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수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녀에게 특정 책을 고르도록 미리 적어준 사례가 있었다. 학생이 자신의 독서를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하여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는 만큼, 도서 배부 시 「독서삼락」 프로젝트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함께 보내 학부모에게 전했다.

개별 독서 및 체험활동

학생들은 직접 고른 독서 자료를 여름방학 동안 <읽고>, 읽은 책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는> 활동을 했다. 활동결과물은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글, 그림,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도록 했는데, 개학 후 잘한 사람을 뽑아 상품을 주기로 했다. 활동결과물은 오프라인은 물론 네이버폼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받았다. 종이접기 책을 보고 작품 만들기, 야구책을 보고 친구와 야구하는 동영상 찍기, 작가에게 편지쓰기, 삼행시 짓기, BTS 피아노 악보집을 골라 연주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요리책과 영상편집 책을 각각 고른 친구들이 협력하여 한 명은 요리하고, 한 명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과 만나 독서 전/중/후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개별화하는 것은 학생의 독서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 모두 독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보령 책사랑책모임이 추천하는 책

보령 책사랑책모임은 지역 도서관과 학교에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며 독서교육운동을 합니다.

지난해 부터는 “아빠와 함께 그림책 여행 1, 2 <북극곰>”를 읽으며 다양한 그림책을 만나고 그림책의 재미에 흠뻑 빠졌답니다.



한 입만

경혜원 글·그림/ 한림출판사/ 36쪽/ 2017. 10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물론 상대에 대한 애정의 마음이 내게 있기에 마음 상하지 않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내게 이 책의 공룡 친구들은 너무도 멋진 방법을 알려줬다.

‘한 입만’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의 음식을 정말 한 입씩 먹어버리는 티라노가 이 책의 주인공이다. ‘한 입’이 엄청 큰 티라노를 주인공으로 한 설정이 재밌다.

속상한 공룡들은 스스로 한 입만 먹으라고 허용했기에 티라노를 탓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티라노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한다. 의도하지 않은 순수한 행동이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기에 감동적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티라노와 그런 티라노를 받아주는 공룡들의 모습이 내게도 새겨지길 기대해본다. -박소진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재클린 우드슨 글/ 라파엘 로페즈 그림/ 한성희 옮김/ 키즈엠/ 40쪽/ 2020. 2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청유형의 제목에 마음의 빗장을 한뼘 쫓은 열어 두고 집어든 책. 사는 곳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고... 남과 다르다는 것은 긴장과 두려움을 넘어 외로움과 슬픔을 불러오곤 한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며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를 외딴섬에 가두게 된다. 살아온 문화환경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개인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초록과 파랑의 색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듯이 다르다는 것 뿐이다. 다문화 시대다. “틀리다” 보다는 “다르다”를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음의 비타민 같은 책. “네 마음이 조금 더 튼튼해져서 마음의 문 한 뼘만 열어줄래? 난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 기다릴게. 용기내.” -문숨미



왜냐면...

안녕달 글·그림/ 책읽는곰/ 52쪽/ 2017. 4

4살, 3살 두 아이가 항상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이 있다. “왜?” 두 아이를 독서를 통해 해안을 가진 우주로 키우고 싶은 나는, 아이들이 “왜”냐고 궁금증을 토로할 때면 너무 기특하고 나 역시 행복함을 느낀다. 안녕달 작가의 ‘왜냐면’은 엄마와 아이가 유치원에서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궁금해하며 “왜?”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엄마가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며 “왜냐면...” 하고 대답해주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그림책 속 아이처럼 “왜?”라고 동시에 물어본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 “왜 그럴까?”라고 되물어보면 그림책의 줄거리대로 혹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아이들의 눈을 보며 책과 함께할 때마다 아이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왜냐면... 아이와 하브루타 수업을 계획 중이거나, 아이의 상상의 나래를 키워주고 싶은 부모님에게 추천하고 싶다. -김민정



곰아, 괜찮아?

조리 존 글/ 벤지 데이비스 그림/ 이순영 옮김/ 북극곰/ 40쪽/ 2018. 12
원제 : All Right Already!

‘안 괜찮아 보이는 곰’이 그려진 표지에 “곰아, 괜찮아?”가 쓰여 있다.

제목 때문일까? 그림 때문일까? 곰이 안 괜찮아 보인다.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리도 꽤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둘 다 안쓰러워 보일까?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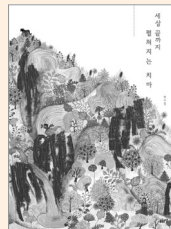
자신의 외부로부터(타인과의 시간, 운동 등)의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는 오리와는 달리, 자신의 내부로부터(혼자만의 시간, 독서 등)의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는 곰. 이렇게 다른 둘은 서로 버거워하고, 섭섭해하며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을 ‘곰’과 ‘오리’라는 설정을 통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여러 가지 요소(동물의 색과 크기, 집의 색, 둘의 성격)들을 그려 넣어 재미를 더해줬다. 인간관계 속에서 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키득 키득 웃어가며 서로의 ‘다름(같지 않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 ‘곰과 오리’가 아니, ‘나와 네’가 꼭 서로의 방법을 인정해주고 함께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성숙된 관계가 되길 바래본다. -이한나



여름밤에

문명예 글·그림/ JET재능교육/ 44쪽/ 2019. 8

여름밤에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고 싶다면, 이 책을 따라 가보는 건 어떨까? 신이 난 강아지 아롱이를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도 아롱이처럼 이리저리 뒹군다. 아롱이를 따라가다 보면 풀숲에 있던 고양이도 만나고 들꽃과 풀들 그리고 목청껏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를 만나게 된다. “아롱아, 산책가자.”란 말 이외에는 글이 없는 그림책이지만,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동감이 느껴져서 ‘이건 민들레! 어! 계란꽃이다!’하고 맞춰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책은 보는 것만이 아니야. 듣는거야!’라고 말해주듯이, 이 책은 QR코드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소리에 집중하며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뛰어가는 아롱이의 소리, 마주치는 동물들의 작은 소리, 개구리의 울림에 빠져들어 그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어렸을 때 길가를 걸어가면서 계란꽃이라고 부르던 그 꽃의 이름이 ‘개망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나의 무식함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과 조금 더 생생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길가에서 꺾은 강아지풀, 개망초... 들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보았다. 꽃다발을 만들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름밤의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나의 여름밤을 가득 채워주는 소리는 뭘까?’ -김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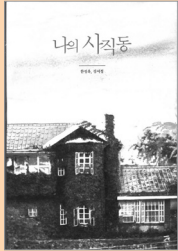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명수정 글·그림/ 글로연/ 2019. 1

이 책을 처음 만나면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그림책은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달달해도 용서가 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것까지 숨겨 놓았다. 작가가 숨겨 놓은 보물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에서는 활짝 웃음이 피어난다. 작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책 표지는 웅장한 우리의 전통 산수화이다. 게다가 전통 그림에서 보는 선과 면이 살아 움직인다. 속표지를 채우고 있는 예쁜 치마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개구쟁이 주인공을 보면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 주고 싶다. 이 작은 아이와 여행을 하고 다른 동물을 만나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 궁금증이 생긴다. 더 이야기 하고 싶지만 독자들의 궁금증을 위해 여기까지, 호호. 치마에 숨겨진 24명의 캐릭터를 찾는 즐거움을 꼭 경험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어른, 아이, 가족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울고 빠지게 만드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다. 이 책이 코로나로 힘든 시절 함께 있어서 위로가 된다.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우리는 함께 가는 친구’라는 울림이 천천히 마음에 스며든다. -김경숙

내가 권하는 책



나의 사직동

김서정 글 한성옥 그림
보림/ 38쪽/ 2003년 6월

한 번도 도시에서 살아 보지 않았다. 이런 나에게 도시도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라는 마음을 품게 한 책을 만났다. 『나의 사직동』. 이 책을 만났던 때는 그림책 공부의 전부였다.

우리 가족이 살고있는 곳은 논, 밭,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공시설이라고는 전교생이 50명 쯤되는 작은 학교가 하나가 전부다. 이런 시골에서 살다보니 아침이면 집안 일을 서둘러 끝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공공도서관을 찾아가서 살았다. 오죽하면 지인들이 우리 가족을 찾으려면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순례하면 찾을 수 있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눈만 뜨면 아이들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것은 '시골 아줌마'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기도 했고, '시어머님 농사일을 거들기 싫어서였다'고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독서시민활동가로 살아갈 수 있게 한 밑거름 시기에 『나의 사직동』을 도서관에서 만나던 날, 불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사직동 아이와 시골 아이 어린 시절 이야기.

우리 동네도 변화무쌍했다. 신작로 흙길에 아스팔트 길로 변했고, 초가집이 슬레이트나 양옥집으로 변했다. 골목에서 놀다가, 계단만 보이던 '가위바위보' 해서 먼저 올라가는 내기를 했다. 채반에 호박, 고사리, 고구마 줄기, 버섯, 취나물 등 집집마다 말렸다. 파마 약값 아끼려고 서로 파마해 주던 이야기. 서울에서 살아 본격적 없는데 장면 장면이 내가 살아 온 이야기와 닮아 있어서 깜짝 놀랐다. 반장 할아버지 생일에 동네 사람이 모인 한옥 집 풍경과 꼭 닮은 친구 집을 부러워했던 어린 시절. 세월이 지난 앨범을 보는 듯 그리웠다. 우리 이렇게 살았었지!

주인공이 살았던 따뜻하고 아련한 추억이 베인 마을이 '아파트'라는 새 주거지로 탈바꿈하면서 주인공의 사직동이 사라진 이야기는 가슴이 시리다. 주인공의 허탈한 발걸음을 보면서 꼭 안아주고 싶었다.

"내 고향도 그랬어." 『나의 사직동』은 그림책으로 되살아나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책이 되었다. 우리 가족의 삶이 곳곳에 묻어나는 그림책을 나도 꼭 만들고 싶다는 씨앗을 품게 했다.

김경숙(보령지역 도서관활동가)



변두리

유은실 글/ 문학동네/ 228쪽/ 2014년 11월

시골 강촌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도시를 꿈에 그리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만 하셨지요. 일만 하는 농촌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씀에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이 토양이 되어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여기 서울 변두리 황룡동에도 도살장과 부산물시장 일을 주업으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떠나 멋진 성곽과 과수원 길이 있는 경기도의 중심 수원을 꿈꾸는 수원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다닥다닥 붙어있어 맨 날 술 먹고 남의 뺨을 흠치거나 도랑에 빠져 똥을 싸는 아버지. 엄마의 고향, 낡은 부엌살림, 선진국 끓이는 냄새, 화장실에 가는 것도 담 없는 이 집에서 이웃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황룡동에는 친정에서 보내준 밤 한가마니로 체면을 차리고 사는 밤벌레 할머니, 아카시아 꽃을 팔아 자식을 키우는 정호네, 아카시아 숲이 헐리면 즉발장사를 그만두고 새집 짓겠다는 상숙이네, 칼잡이 아빠를 둔 영숙이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원은 어려운 환경에도 엄마아빠를 돕는 속 깊은 아이지만 가끔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도, 남루한 집도, 술주정아빠도, 엄마도 사라져버리길 바라기도 하고 또 정말로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어디서든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아카시아처럼 강인하게 만드는 힘이 아카시아 첫 꽃에 있다 하여 아이들을 용비봉 아카시아 숲으로 길을 나서게 합니다. 용비봉 아카시아 숲에 흐드러지게 핀 꽃잎을 따먹으며 수원은 집과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을 잠시 잊어보기도 합니다. 작가는 아직 철들지 않은 아이 삶의 무게를 차분하게 내치기도하고 읽다 보면 보듬어주는 가 하면 또 나락으로 떨어뜨려 다시 올라오게 하는 쓸쓸함과 슬픔이 자연스럽게 녹여내 읽는 이의 마음을 울리기도 웃게도 합니다. 수원의 시선을 통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성장통을 겪으며 서로를 껴안고 살아가야 빛이 난다는 걸 알게 합니다. 또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과 하얀 아카시아 숲이 황룡동 사람들 일상의 공간으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영인(안성 서운중학교 사서)



선생님, 기후 위기가 뭐예요?

최원형 글, 김규정 그림
철수와영희/ 128쪽/ 2020년 6월

2020년, 여름은 유난히 긴 장마로 비도 자주 오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하는 날이 많고, 날마다 발열체크 후 자가진단을 보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느 곳에도 외출할 수 없는 변화된 세상에 마주하고 있다. 당연히 반복되는 줄만 알았던 평범하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온 세계 지구인들은 왜 이렇게 변화된 일상을 겪게 되었을까? 이 책은 어쩌면 이미 예고되었을지도 모를 그 문제들을 이야기한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게 만드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총 35개의 다양한 사례를 질문과 그 대답으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도와준다.

기후가 변하면 감염병도 자주 발생할까?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사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영구 동토층에 묻혀있는 동물 사체의 세균과 메탄가스가 나와 어떤 감염병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음식물을 남기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날의 먹거리는 대부분 계절과 관계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생산하고 운반하고, 조리하는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 즉 음식을 먹는 것은 에너지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약 581만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버려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또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전자제품을 많이 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왜 기후에 영향을 주는지? 재활용이 기후 위기를 막아 줄까? 알래스카가 더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바다속 산호초가 사라지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이 책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후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한걸음 한걸음 실천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김지순(성남 창성중학교 사서)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전국학교도서관모임 20년을 돌아보다

박정해(서울등원중 교사)

2000년 12월 24일, 학교도서관에서 희망을 꿈꾸며 서울, 인천, 대구에서 활동하던 5명의 교사들이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교사들’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3월 3일에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2002년 1월, 제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 ‘학교도서관분과’로 참여하여 학교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여러 지역의 교사들과 만나 전국적인 조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지금은 ‘전국학교도서관모임’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학교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함께 하며 학교도서관을 독서교육과 모든 교과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자 평등교육의 산실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이면 ‘전국학교도서관모임’이 생겨난 지 20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임이 지나온 20년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20년은 모임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도서관 운동사와 맥락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전국학교도서관모임 백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20년간 모임의 회의록과 운영진을 정리하는 것 그 자체가 학교도서관 운동사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가제) 단행본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전국학교도서관모임의 창립 과정부터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서 지역모임의 활동과 학교도서관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사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셋째, 학교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래교육 담론 속에서 학교도서관의 발전 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과 학교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해서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학교도서관의 ‘정책’, ‘공간’, ‘프로그램’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하고 꿈꾸던 것들이 무너지거나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밝은 햇빛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하루하루 한 발짝 내딛어야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역경지수(AQ)와 코로나 위기 극복

전재학 (인천 세원고등학교 교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를 일찍이 가보지 않은 초유의 길로 이끌면서 많은 역경과 혼돈으로 지구촌을 흔들고 있다. 특히나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계급의 세습,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 등 한국 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부각시키며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냉엄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크게는 전 인류에게 오만에 대한 경고이자 현대화에 대한 심각한 비평문이다. 세계화, 도시화가 우리를 대지 밖으로 내치면서 이제 질주하는 관성을 멈추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과거 어떤 시련보다 강한 역경 극복 능력과 이를 함양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는 일찍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Paul Stoltz)가 1997년에 제기한 이론으로 인간의 능력을 헤아리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오랫동안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던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의 뒤를 잇고 있다. 그럼 AQ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그는 역경을 뚫고 목표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까지 위기에서 구한다. 먼저 오늘의 역경인 코로나19 사태를 진단해 보자. 코로나19는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처럼 기후변화로 지구의 물순환이 바뀌면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 인간의 문명이 재앙을 맞게 된 것이다. 결국 서식지가 파괴된 모든 생물이 대대적인 이주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코로나

19의 주범 박쥐도 마찬가지다. ‘지구 민주주의’와 ‘에코 페미니즘’의 사상가이자 과학자인 만다나 시바 역시 지구 생물의 1/3이 사라진 지난 30년 동안 300여 개의 감염병이 숲에서 나왔다는 거부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을 지적했다. 이처럼 생태계 파괴가 부른 인간 문명의 위기가 코로나19인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사례를 보자. 과학교사 A, 그는 책상에 나사(NASA)가 찍은 창백한 지구 사진을 붙여 놓고 “하나뿐인 지구를 사랑하자”고 학생들을 교육한다. 그는 어느 철학자의 식탁을 소개하면서 육류소비를 줄여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종이 타월을 쓰지 않고 삼푸 대신 비누 사용을 생활화하며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지금, 기술·가정 교사인 K는 모두가 선호하는 온라인 클래스에 학습 자료와 녹화물을 올리는 대신에 역경을 무릅쓰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습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교사가 고생하면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굳건한 교육철학의 선도 교사다. 아침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발열 체크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자원하여 봉사하는 Y교사, 방역의 최전선에서 꼼꼼하게 방역물품을 챙기고 각종 증상에 대한 대면, 비대면 상담을 동시에 하며 구석구석까지 소독에 전념하는 백의 천사인 L교사, 소장한 모든 도서를 직접 소독하며 책임기를 권장하며 또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적성, 진로를 찾도록 애쓰는 또 다른 K교사... 이들은 코로나 시대의 역경을 극복하며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주인공들이다.

그뿐이랴. 평소 기저질환인 천식으로 인해 등교 수업을 자제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보건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 G군, 동아리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행사에도 열성이면서 학교의 공터를 이용하여 텃밭을 가꾸고 중국의 화웨이산업에 도전하겠다는 야무진 꿈의 학생 P군, 이들은 역사를 스스로 밀고 가는 주인공이다. 이들의 선택과 결단은 내일 우리가 살아갈 밑그림을 펼치고 있다. 내일은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비록 오늘 역경의 순간을 지나지만 꿈이 있고 삶의 의미를 자각하는 교사, 학생 모두가 학교의 존재를 더욱 빛내는 미래의 희망 전도사들이다. 이들의 역경 극복은 “덕분에 챌린지”의 또 다른 증거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누가 진짜 도둑인가?

- 어머니 독서동아리와 함께 읽고 나는 책 『진짜 도둑』

김연옥(전 서울대모초등 수석교사 / 경인교대강사)

보물창고에 보물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수문장 가원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다. 가원은 큰 상처를 받고 소리 높여 꺾여꺾여 울면서 “나는 너희 모두를 버리겠다. 영원히!” 하며 커다란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다음 장을 궁금하게 하는 책 『진짜 도둑』(베를북) 수업시간 아이들의 몰입은 엄청나다. 진짜도둑이 궁금하여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바로 읽어버린다. 그리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꼼꼼히 읽으며 토론한다. 보물로 인해 불행해진 인물들, 억울하게 몰리는 가원이나, 눈앞의 보석에 눈이 어두워지는 데릭이나, 아들처럼 믿고 아끼던 가원에게 누명을 씌우고 통탄하는 배질왕이나, 존경하던 가원에게 시선을 피하며 동조했던 이웃들이나 모두 우리네 삶의 모습들이다. 애드리안의 질투조차도 공감 이 간다. 선과 악, 죄와 용서, 공동체를 위한 정의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정의와 용서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지르지 않나’, ‘세상 그 어느 것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한 문장 한 문장에 삶의 깊은 통찰이 들어있다. 작가는 60대 후반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겪고 쓴 작품으로 삶의 연륜이 보인다. 칼데콧상과 뉴베리상을 여러 차례 받은 작가 윌리엄 스타이그의 친근한 그림과 유머를 담은 동물우화로 재미에 빠져 읽다가 목격 한 삶의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7년째 함께 나눔을 하고있는 대모초 독서동아리 어머니들과 이 책으로 토론을 하였다.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배질왕 처럼 아이에게 억박지르는 부끄러운 엄마의 모습 등 삶의 이야기를 꺼낸다. 결혼 전 회사 다닐 때 회사의 기밀이 새 나가서 의심받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 일을 떠올리고 이 책을 읽으며 눈물을 쏟으며 치유가 되었다는 이야기, 처음 읽었을 땐 가원의 억울함과 용서가 보였는데 다시 읽으니 데릭이 보였다고. 재판과정에서 데릭에게 감정이 입이 되었다 한다. 잘못된 줄 모르고 루비 하나 옮겨

간 것이 그토록 엄청난 일로 연결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이 더 고통스러워진 데릭이 바로 우리네 모습임, 데릭의 아파하는 모습과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소중한 마음이고 문제해결을 한 그날 ‘마을 전체가 단잠을 이루었다’는 표현이 남는다고들 한다. 현명한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데릭의 범죄를 둘만의 비밀로 묻어두고 데릭이 과연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가원은 용서했다지만 그 엄청난 상처를 다 잊을 수 있을까?

용서와 정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용서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토론은 사회문제 국가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토론은 깊어진다. 논리가 너무 완벽해서 가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알고 보니 바닥에 빈틈이 있는 사소한 것조차 보아내지 못하고 왜곡된 논리에 갇혀 결국은 가원을 억울하게 몰고 가는 우리네 일상을 보는 듯, 그렇다면 진짜도둑은 누구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나눔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물음들, 80쪽의 짧은 동화를 읽고 3시간을 토론하여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 책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고 싶다고 한다. 10년에 한 번씩 계속 읽어보며, 나이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거리를 많이 주는 『진짜 도둑』이 왜 고전의 반열에 오를만한 책인지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많은 질문들을 자신의 삶의 문제와 버무려 글쓰기 과제로 안았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읽는 책, 어머니들이 함께 읽으며 학교와 가정의 독서교육을 연결하고 보완하는 어머니 독서동아리, 어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독서동아리 활동을 권유한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나무는 좋다』를 읽고

김지은(보령지역 독서운동가)

유레없이 비가 많이 오는 올해에는 나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일이 많아졌다. 길고 잦은 비와 무서운 바람에도 일상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나무 덕분이었다. 그러다 책장에서 잠자던 책 한권을 꺼내들었다.

『나무는 좋다』(시공주니어) 이 책은 나무가 왜 좋은지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설명서가 아니다. 감각을 깨어나게 하는 서정시이다. 첫 장을 펼치면 단색으로 칠해진 나뭇잎들이 마치 울창한 숲 속의 냄새를 전해주는 것 같다. 문득 상쾌한 느낌이 들어 심호흡을 해 본다.

한 장을 넘기면 죽은 나무 뿌리에 올라 선 소년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우리의 소년들이 잃어버린 흑백 장면은 아닐까. 붉고 노란 단풍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떨어진 잎들을 모아 집을 짓고 모닥불을 피운다. 일곱 살 아들이 이 장면을 보더니 “엄마, 저 애들은 애들 아니야? 어른이 아닌데도 불을 피우네?” 우리들이 어릴 적엔 논바닥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에겐 이런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나무에 올라타고 놀이하듯, 사과를 따는 아이들의 몸짓과 표정은 제각각이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나무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듯이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 또한 아름다워 보인다.

우리는 나무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생존을 넘어 나무와 가까워지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놀이를 창조하며,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나무는 사람을 생명체로 살게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 아이가 나무를 심고 자라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마지막 장면은 다른 아이도,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 나도 나무가 심고 싶어지게 한다. 나무에게 받기만 했던 우리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나무는 그래서 좋다. 매우 좋다. 정말 고맙다.

학도넷 소식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20년 3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봉호 발행(총권 51호)
- 2020년 7월 30일 학도넷 정기총회 겸 운영위원회
- 2020년 8월 8일 2020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신입회원 (2019년 12월~2020년 2월)

준회원 : 추연실

웹회원 : 이승규 하윤옥 유도연 공세희 율복 김영실 유소연 윤연자

회비 및 후원내역 (2020년 3월~2020년 8월)

정회원 회비

·매월 3천원 : 고은 김미영 김미향 김원형 김지순 남경화 박규리 박영혜 박인자 박정미 박정민 박종숙 박현주 신수인 신재희 오계화 윤정숙 염효경 이영인 이유나 이은옥 이인문 이재경 조성우 천진아 최선숙 최유미 최창의 함정희 황희진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정미 광정은 구미숙 권도경 김미숙 길영희 김경숙(보령) 김경진 김경하 김누리 김대경 김동현 김리라 김명선 김명화 김미령 김선영 김소원 김수연 김수현 김심환 김연옥 김영신 김유진 김윤주 김은승 김은영 김은하 김정숙 김정혜 김하나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선미 박은하 박준섭 박현숙 박효정 변향희 백경숙 백연주 서미혜 서윤주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성미경 송경영 송명원 송숙영 송윤서 송혜영 신영숙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지연 안경애 안정원 안희정 양은주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윤소영 이금화 이규선 이남지 이미순 이선화 이수경 이영선 이유정 이은혜 이주영 이현 이현애 이혜진 임경순 임재연 임지은 장부자 정명하 정미순 정수연 정영희 정유희 정은희 정해선 정혜련 조영순 주상태 진은진 차진미 채재현 최민영 최은규 하은경 한은미 허현주 홍용란 홍선희 황동욱 황순영 허지은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은수 권향미 김경숙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정윤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김태현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변영이 백화현 불어라봄바람 신형란 안미정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덕주 이문숙 이민수 이소연 이영주 이재선 이찬미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최진영 한명숙 허경림 황봉희

·매월 1만5천원 : 김효숙

·매월 2만원 : 김순정 박은숙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매월 5만원 : 이루리

·연회비 : 김용진(성산동) (12만) 안용덕(12만) 김경숙(보령)(12만)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원)

준회원 회비

·매월 : 김민형(2천) 김승요(2천) 김승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제희(2천)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어린이를 위한 슬기로운 미디어생활(우리학교)/ 백투더 1919(철수와 영희)/ 마지막 배(북극곰)/ 버찌잼 토스트(북극곰)/ 수상한 화장실(북멘토)/ 처음 배우는 4.19 혁명과 민주주의(북멘토)/ 별레를 밟았다(바람의 아이들)/ 승리의 비밀(바람의 아이들)/ 로봇교사1,2(별숲)/ 교실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보이텔스바흐 수업(학교도서관저널)/ 난 그냥 나야(바람의 아이들)/ 녹색인간(별숲)/ 수상한 글자를 만나다 <세종대왕편>(한권의 책)/ 거대한 줄다리기 <이순신편>(한권의 책)/ 네 발의 총소리 <김구편>(한권의 책)/ 엉뚱한 질문으로 배우는 인체의 수수께끼(북멘토)/ 도서관생태마을에 삽니다(학교도서관저널)/ 두근두근 처음 도서관(학교도서관저널)/ 10대와 통하는 건강이야기(철수와 영희)/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상상의 힘)/ 너, 그거 알아?(계수나무)/ 널 잊지 않을게(가람어린이)/ 나는 오, 너는 아(북극곰)/ 아리아, 내 마음을 알아줘(별숲)/ 호프가 여기에 있었다(도토리숲)/ 시가 좋은 날(예사랑)/ 공룡알과 자동차(계수나무)/ 신친일파(봄아아트북스)/ 앤들링(가람어린이)/ 소년을 위한 재판(공명)/ 대한민국 미래교육 콘서트(공명)/ 사람은 사람으로 사람이 된다(공명)/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저마다의 안나푸르나가 있다(공명)/ 엘리베이터의 이상한 버튼(한솔수북)/ 전염병전쟁(철수와 영희)/ 정원을 가꾸어(북극곰)/ 세계를 바꾸는 착한 특이이야기(북멘토)/ 정애와 금옥이(별숲)/ 방언사전(학교도서관저널)/ 학교도서관 활용수업2(학교도서관저널)/ 여름(글로연)/ 선생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철수와 영희)/ 여덟 살 우주(별숲)/ 태극기를 든 소녀2(그레이트)/ 처음 서양고전(북멘토)/ 전사들 2(어둠의 강(가람어린이)/ 올라볼라 의자학교(그레이트)/ 8282 나를 부르는 신호(그레이트)/ 금요일엔 언제나(북극곰)/ 46인의 여성독립운동가 발자취를 찾아서(열레빗)/ 이상하지도 아프지도 않은 아이(우리학교)/ 모모2(북극곰)/ 달팽이의 노래(북극곰)/ 스마트맨(북극곰)/ 싸아아(킨더랜드)/ 황새봉순이(킨더랜드)/ 햇빛초 대나무 숲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우리학교)/ 유령박쥐 빈센트와 친구들(북멘토)/ 알프레드, 거기 있니?(북극곰)/ 주디스 커(북극곰)/ 워든지 로봇 다요(리를 씨앤틱)/ 책먹는 도깨비 암암이(북극곰)/ 스티커 탐정 키크(별숲)/ 용기의 땅3 피와뼈(가람어린이)/ 땡글땡글 세계의 수도를 읽다(지성사) 저자지증 : 코스모스스쿨8, 30권(안재희 글,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강남사장(이지음 글, 비룡소)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계간 고래가숨쉬는 도서관/ 계간 우리교육/ 월간 개똥이네 놀이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간 학교도서관저널/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동화읽는어른/ 마을이 된 도서관 이야기(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학도넷 2020 여름방학 사서연수

<작가와 함께 떠나는 마을탐사>

세상이 아프고 힘들어 많이 움츠러드는 요즘, 그럼에도 학교도서관에 활기찬 숨을 불어넣으려 분투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선생님들의 새로운 소통과 충전을 위해 세 분의 작가가 나서주셨습니다. 작가와 함께 하는 마을탐사로 조심스럽게 학도넷 여름연수를 준비합니다. 여름, 뜨거운 햇살 받으며 가만가만 마을 길을 걸어요.

1. 새로운 에세이집 <잘 나간다, 그림책>(책고래)을 내신 김서정선생님과 함께 오래된 마을, 서촌을 만나보고 돌레길을 걸어 수성동계곡, 백사실계곡을 찾아갑니다.
2. 생태환경운동가 최원형선생님의 <선생님, 기후 위기가 뭐예요?>(철수와 영희)를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우리 삶의 형태들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어떻게 불러왔는지, 오늘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찾아봅니다.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을 찾아 마을을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책'들의 상상력과 진정성을 만납니다.
3. 그림책 <나의 독산동>(문학과 지성사) 청소년소설 <변두리>(문학동네)의 작가 유은실 선생님과 작품의 배경이 된 마을 독산동을 찾아갑니다. 마을여행책 발간을 앞둔 교육나눔협동조합 오현애 대표와 독산동의 도시재생 현장을 만납니다.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때 : 2020년 8월 8일(토)/ 8월 22일(토)/ 8월 29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3일, 21시간)

·곳 : 서촌 일대, 상도동 성대골마을, 금천 독산동과 도시재생공간
·대상 : 학생과 교사, 교실과 도서관을 풍부하게 연결하고 싶은 초·중등 사서(교사), 도서관담당교사, 자원활동가 선착순 20명

·읽어오기

·<잘 나간다, 그림책>(책고래)

·그림책 <나의 사직동>(보림)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철수와 영희)

·<환경과 생태 짬 아는 10대>(플빛)

·<나의 독산동>(문학과 지성사)

·<변두리>(문학동네)

·준비물 : 읽은 책, 모자나 양산, *마스크는 필수

·문의 : 학도넷 사무처 02-720-7259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5번 게임

은소홀 글 | 노인경 그림

“정직한 육체성에 대한 깨달음,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두려움을 이겨 내는 경험. 건강하고 당당한 여성 아동 주체가 탄생했다.” **심사평**

“승리의 부적보다
센 게 있다는 걸 알았어.”

“그게 뭔데?”

“나.”

